

김민재, 빅리그 토트넘 뛰려면 복잡한 에이전트 먼저 정리해야

신원 확인된 에이전트만 4명...계약 걸림돌 협상창구 단일화...베이징과 관계개선 중요



김민재

축구국가대표팀 김민재(24·베이징 궈안)의 유럽 진출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중국 선양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친 김민재는 20일 베이징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쑤저우로 향했다. 2월말 개막하려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된 중국 슈퍼리그가 25일부터 쑤저우와 다롄, 2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기 때문이다. 김민재는 쑤저우에서 메디컬 체크 등 새 시즌에 대비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일단 시즌을 소화하며 유럽행을 타진할 전망이다. 김민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중 토트넘이 적극적이다.

다만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베이징은 계약 만료가 1년 6개월 남은 선수를 쉽게 내줄 생각이 없다. 최대한 이적료를 높여 받아내려는 의지다. 1400만 파운드(약 211억 원)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당연히 금액을 낮추길 원한다. 1000만 파운드(약 151억 원) 선이다. 금액 차가 상당하다. EPL 여름 이적시장은 10월초까지 열리는 만큼 토트넘이 서두를 이유는 없다. 영국 스카이스포츠와 중국 시나스포츠는 "조건이 맞으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에 앞서 김민재가 먼저 해결할 부분이 있다. 비교적 복잡한 에이전트 관계다. 이번 건에만 포르투갈 에이전트를 포함해 4명 정도가 달려든 정황이 포착됐다. 신원이 드러난 이들만 그렇다. 한 축구인은 "사안이 특별할 수록, 가치가 높을수록 에이전트가 많이 매달릴 수 있다"면서도 "유럽은 여러 대리인이 연계된 작업을 좋아하지 않는다. 소문장구는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구단과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분위기는 김민재에게 썩 우호적이지 않다. 국내에 머물 당시 김민재를 둘러싼 잡음을 불쾌해했던 궈안후이 회장과 리밍 단장의 마음부터 풀어야 한다. 토트넘이 높은 금액을 제시해도 이들 수뇌부가 거절하면 협상 종료다. 이들을 직접 대면할 김민재가 진심을 전하고 자세를 낮추는 모습도 필요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2007년 신예 쌍용과 2020년 베테랑 쌍용



'쌍용' 이청용(왼쪽)과 기성용은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축구의 간판스타였다. 소속팀 서울은 물론 국가대표팀에서도 든든한 콤비였다. 이청용은 올 시즌 울산 유니폼을 입고 K리그로 복귀했지만 기성용은 친정팀 서울로 되돌아간다. 엇갈린 운명은 K리그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스포츠동아DB**

적으로 만나는 '쌍용', 신바람 K리그

(울산 이청용-서울 기성용)

FC서울 유망주로 10대 후반에 데뷔 귀네슈 감독 공격축구서 '쌍용 열풍' 2009년 유럽진출...10년 넘게 활약 울산 K리그 유턴...내달 '쌍용 데비'

'쌍용'(이청용·기성용)은 FC서울이 만든 최고의 작풍 중 하나다. 1990년대 말부터 유망주 영입에 열을 올린 서울은 2004년 이청용, 2006년 기성용을 데려왔다. 이청용은 중학교를 중퇴했고, 기성용은 호주 유학파다. 나쁜 습관이 몸에 배기 전 클럽에서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게 서울의 구상이었다.

구단의 판단은 옳았다. 이들의 재능은 남달랐다. 특히 축구 센스는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폭풍 성장했다. 측면 미드필더 이청용은

과감한 돌파와 창의적 패스가 돋보였고, 신장(189cm)이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기성용도 수비와 패스, 슈팅 등에서 일취월장했다.

이들이 함께 K리그에 출전한 것은 2007시즌부터다. 선수단 관리와 전술은 응능력이 탁월했던 터키 출신 세베 귀네슈 감독은 10대 후반의 쌍용을 중용하면서 팀 색깔을 바꿔나갔다. 빠른 템포의 공격축구에서 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쌍용 열풍'은 그렇게 K리그를 뜨겁게 달궜다.

이청용은 2005년부터 5시즌 동안 68경기에서 12골·17도움을 기록했다. 2007년부터 출전 기회를 잡은 기성용은 3시즌 동안 80경기에서 8골·12도움을 올렸다. K리그의 아이콘이었던 둘은 약속이나 한 듯 2009년 유럽무대에 진출했

다. 여름에 떠난 이청용은 불턴 원더러스(잉글랜드), 6개월 늦은 기성용은 셀틱FC(스코틀랜드)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곳에서도 꽃을 피웠다. 이들은 10년 이상 유럽에서 생활하며 축구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이들은 희망이었다. 연령별 대회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해 경험을 쌓은 이들은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필멸 날았다. 양박(박지성·박주영)과 함께 쌍용은 대표팀의 중심축이었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는 주장 기성용만 나갔다. 기성용은 A매치 110경기, 이청용은 89경기에 각각 출전했다.

돌고 돌아 다시 K리그다. 이청용은 이미 울산 현대 유니폼을 입었다. 올 시즌

9경기에서 3골·1도움을 기록하며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기성용도 우여곡절 끝에 서울 구단과 입단계약 조건에 합의했다. 11년만의 복귀다. 이청용은 3월 입단 기자회견에서 "11년 전보다 지금이 더 간절하다. K리그에서 못 이룬 우승의 꿈을 울산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성용에 대해 "언젠가 K리그에서 함께 뭉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바람이 이번엔 이뤄졌다.

이들이 함께 선다면 K리그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동지가 아니라 적으로 만난다. 다른 유니폼을 입고 상대를 꺾어야 할 운명이다. 어쩌면 이 그림이 팬들이 바라는 구도일지도 모른다. 울산과 서울의 '쌍용 데비'는 이르면 8월 30일 볼 수 있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이강인 최종전도 교체출전...비시즌 새등지 틀지 관심

세비야전 후반 20여분 그라운드 누벼

이강인(19·발렌시아)이 교체출전으로 2019~2020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마무리했다.

이강인은 20일(한국시간)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 최종 38라운드 세비야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26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 20여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교체출전 1분 만에 강력



이강인

한 알발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불은 골대를 훌쩍 넘어갔다. 공격 2선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격의 활로를 뚫기 위해 애썼지만 세비야의 두꺼운 수비벽을 허물지 못했다.

이강인이 풀타임으로 발렌시아 1군에서 활약한 것은 이번 시즌이 처음이다. 2018~2019시즌에는 B팀에서 출발해 시즌 중반

1군 멤버로 정식 합류했다. 지난 시즌 1군 무대에선 11경기를 뛰었다.

2019~2020시즌에는 좀더 출전 기회를 얻기 했다. 프리메라리가 17경기, 코파 델 레이 2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5경기에 나섰다. 하지만 선발보다는 교체로 나서서 경기들이 많았고, 출전 시간은 총 694분 정도로 집계됐다. 이강인은 총 24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정식 1군 멤버로서의 한 시즌을 마쳤다.

발렌시아는 이제 비시즌에 돌입한다. 이강인에게도 휴식이 주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선택이 남아있다. 발렌시아와의 동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발렌시아와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 그러나 발렌시아는 대대적으로 팀을 개편하더라도 이강인을 이적시킬 의사는 없어 보인다.

발렌시아가 놓아주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이강인은 유니폼을 바꿔 입기가 쉽지 않다. 발렌시아는 이강인과 2018년 재계약하면서 최소한의 이적료인 바이아웃 금액을 8000만 유로(약 1101억 원)로 설정했다. 유망주 영입을 위해 막대한 이적료를 투입하는 구단은 많지 않다. 더 많은 출전 기회를 확보해 본격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이강인이지만, 뜻을 이루려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듯하다. **최용욱 기자 gtyong@donga.com**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20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수	타율	승률	경기 연속 타율	방어를	홈런	득점	실점	실점률	도루	실책				
1	N C	63	42	19	2	0.689	-	3승	0.290	4.44	0.710	403	295	89	42	30
2	두산	64	38	26	0	0.594	5.5	2승	0.302	4.98	0.586	395	352	62	32	40
3	키움	66	38	28	0	0.576	6.5	1승	0.271	4.76	0.697	370	336	75	50	47
4	L G	64	34	29	1	0.540	9.0	3승	0.279	4.60	0.500	348	328	60	39	38
5	K I A	62	33	29	0	0.532	9.5	2승	0.276	4.35	0.645	311	290	66	19	41
6	삼성	65	34	31	0	0.523	10.0	1승	0.274	4.42	0.583	346	315	61	60	43
7	K T	64	31	32	1	0.492	12.0	2승	0.291	5.34	0.363	366	357	74	44	42
8	롯데	62	30	32	0	0.484	12.5	1승	0.274	4.76	0.621	307	321	53	46	33
9	S K	65	21	44	0	0.323	23.0	1승	0.243	4.84	0.394	252	341	56	33	46
10	한화	65	17	48	0	0.267	27.0	4승	0.240	5.50	0.300	223	386	35	32	56

•평균자책점

순위	선수	팀	방어를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패	세	타율	출루	상진	4사	피탈을	WHIP
1	구창모	N C	1.35	12	80.0	14	12	9	0	0	48	3	82	15	0.174	0.79
2	요키시	키움	1.62	13	83.1	22	15	9	2	0	66	3	56	14	0.216	0.92
3	스트레일리	롯데	2.03	14	88.2	24	20	4	2	0	64	5	89	23	0.203	0.96
4	루친스키	N C	2.05	13	83.1	20	19	9	1	0	66	6	73	28	0.216	1.08
5	브룩스	K I A	2.49	13	83.0	24	23	5	3	0	78	3	68	17	0.252	1.12
6	원태인	삼성	3.12	12	86.1	24	23	5	2	0	66	7	40	28	0.258	1.37
7	말린타라	두산	3.13	13	83.1	30	29	8	1	0	81	7	45	17	0.253	1.12
8	문승원	S K	3.30	13	79.0	33	29	2	6	0	70	6	68	24	0.236	1.14
9	류재민	삼성	3.36	13	85.2	33	32	8	4	0	80	10	57	23	0.252	1.14
10	배재성	K T	3.60	11	65.0	27	26	5	2	0	64	7	43	31	0.255	1.45
11	홍재민	두산	3.80	12	64.0	29	27	4	3	0	61	3	59	22	0.254	1.28
12	라이트	N C	3.84	13	70.1	30	30	6	2	0	67	7	55	37	0.254	1.41
13	가봉	K I A	3.88	12	67.1	34	29	5	3	0	64	2	70	27	0.250	1.29
14	임찬규	L G	4.06	11	64.1	33	29	3	0	65	6	62	20	0.255	1.27	
15	윌슨	L G	4.35	12	70.1	40	34	4	5	0	77	7	48	23	0.278	1.39

※ 피탈을 : 안타 + 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 (안타+볼넷) / 이닝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출루	득점	타점	도루	4사	상진	실책	득점권	OPS
1	로하스	K T	0.387	64	256	99	22	57	80	0	25	61	3	0.375	1.170
2	페르네스	두산	0.378	64	262	99	12	58	48	0	33	18	0	0.313	1.017
3	이정후	키움	0.362	66	257	93	12	45	52	5	27	21	1	0.384	1.040
4	강진성	N C	0.359	58	195	70	10	35	43	5	16	24	2	0.370	0.990
5	손아섭	롯데	0.351	62	239	84	3	47	37	2	32	31	1	0.365	0.889
6	오재일	두산	0.349	50	192	67	7	28	38	0	19	32	1	0.393	0.960
7	김현수	L G	0.335	64	260	87	12	47	50	2	22	23	0	0.475	0.944
8	김상수	삼성	0.333	62	219	73	1	42	20	7	40	32	5	0.395	0.858
9	조용호	K T	0.326	58	175	57	0	39	15	8	29	29	0	0.400	0.786
10	배정대	K T	0.325	64	243	79	6	36	30	10	27	62	2	0.305	0.888
11	박건우	두산	0.319	59	226	73	6	52	34	3	27	33	1	0.327	0.880
12	최형우	K I A	0.318	60	214	68	10	40	39	0	38	34	0	0.324	0.926
13	박민우	N C	0.314	58	220	69	3	39	25	6	20	16	2	0.419	0.808
14	이대호	롯데	0.312	62	231	72	11	29	49	0	29	27	0	0.368	0.895
15	나성범	N C	0.310	58	239	74	15	48	50	0	27	76	0	0.328	0.962
16	라모스	L G	0.310	58	210	65	16	32	39	0	29	61	2	0.304	0.973
17	황재균	K T	0.309	54	220	68	6	42	32	4	17	37	4	0.268	0.824
18	강백호	K T	0.303	49	188	57	12	39	36	2	24	39	1	0.203	0.936
19	터커	K I A	0.303	62	241	73	16	44	55	0	33	32	1	0.349	0.968
20	최주환	두산	0.299	62	234	70	8	36	44	0	24	32	4	0.386	0.841
21	말테이	N C	0.298	63	225	67	17	48	59	11	23	68	0	0.344	0.967
22	박세혁	두산	0.296	57	179	53	3	28	30	1	21	20	3	0.333	0.760
23	이명기	N C	0.295	60	200	59	1	34	19	4	17	34	0	0.244	0.697
24	서건창	키움	0.295	64	234	69	5	44	26	16	1	28	2	0.347	0.836
25	권희동	N C	0.294	53	163	48	9	36	31	1	37	31	2	0.373	0.926
26	양의지	N C	0.294	53	177	52	9	31	44	1	25	20	1	0.392	0.901
27	박태민	삼성	0.293	54	188	55	5	34	22						